

# 지혜에 눈떠 세상을 복되게 하면 '화엄'

## 대방광불 화엄경 강의

용학 스님 (범어사 강주)

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청정히 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은 지난 1월 5일 관음재일 법회에서 "신심을 가지고 또박 또박 화엄 약찬계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청정해지고 지혜와 자비를 갖출 수 있다"고 설했다. 모든 방편을 가지고 큰마음의 이치를 널리널리 펼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대방광불 화엄경은 우리에게 꽃처럼 살고 열매처럼 결실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용학 스님은 전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우리가 한 세상 와서 사는 것이 것이 얼핏 보면 불성의 종자가 잘 움틀 것 같지도 않고 희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신심이 있는 자들은 파란색이 움틀 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사바세계 지난한 세월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라는 천년의 빛나는 보배 같은 분이 계시기에 화엄의 맥이라는 범문 한 자락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화엄경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영화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관 가서는 영화는 안 보고 영화관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절에 와서 화엄경 범문 안 듣고 절만 보고 간 사람은 관음재일날 절에 오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장점을 살려서 더불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화엄산림의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엄경 약찬계를 범회 때마다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허공처럼 비워 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말이죠. 화엄경 약찬계는 용수보살이 지었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줄여 놓은 것입니다. 바다가 너무 망망대해니 바닷물을 줄여 놓은 것처럼 불자들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약찬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처음 출가 했을 때 배우는 말입니다. 근기와 나무의 뿌리가 다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만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도 만년 세월이 지나더라도 오늘과 같은 존재요. 천만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니 보톡스 맞을 일도 없고 화장 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범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실 길이 다 끊어졌고 원효대사님이 가신지도 오래 됐기 때문에 여기 제가 있습

### 화엄경 약찬계 매일 독송

### 신심 간절하면 탐심 끊어져

###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 꽃처럼 열매처럼 사세요"

니다. 어쨌든 관음재일 범문은 제가 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품질 부처님이요? 설법전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꽃처럼 빛나고 달콤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청정하고 맑고 복된 터 신신 사는 곳 같은 곳에 와서 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 내 자신에게 모진 생각을 갖지 않도록 꽃처럼 사는 것이 華(화)요 남들에게 잘 영근 대



관음재일을 맞아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대중들에게 설했다. 스님은 화엄 약찬계를 매일 독송하면 탐심이 끊어지고 화가 사라진다고 대중들에게 경전독송을 권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한다는 의미를 가진 '대방광불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했다.

추처럼 알곡식처럼 아주 맛난 과일처럼 열매가 되어 사는 것이 엄(嚴)입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득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지혜에 눈을 뜨고 역량껏 소질껏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전 조쪽 두목 김태촌이라는 분이 저 세상으로 가셨죠? 그 분이 소질이 미치지 못하니 폭력적 강압적으로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어쨌든 극락왕생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사신 분들은 뭐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도음 못 주는 삶은 백 살을 살면 뭐하고 천 살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복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길마다 금은보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발로 지나간 뒤에도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넷가에 모난 돌이 흘러가는 물결에 깎이듯이 지나가는 바람결에 단단한 바위가 깎이고 낙숫물에 바위가 풀리듯이 대방광불 약찬계를 읽는 것은 우리 마음을 수습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수행하면 시비가 끊기게 됩니다. 인생에서 자비와 지혜를 갖추고 신심이 간절해지면 마장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 열심히 정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질게 살아온 업장이 소멸한다는 마음으로 이 약찬계를 읽어 봅시다.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계 나무화장세계해(大方廣佛華嚴經 龍樹菩薩略纂偈 南無華藏世界海)/ 비로자나진법신 현재실법노사나 석가모니제여래(毘盧遮那眞法身 現在說法盧舍那 釋迦牟尼諸如來)…”

지금 읽으신 약찬계 710자 잘 읽으신 분도 읽고 찬란스럽게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고 다

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 작은 점이라도 받쳐 놓으면 작은 점시만큼 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야 받치면 대야만큼 큰 바다만큼 펼쳐 놓으면 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열불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글자 글자 몰입해서 1년만 읽으면 탐심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복이나 품값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어집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되지요. 6개월 지나면 화를 내거나 남을 해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속마음은 어찌 됐든 간에 걸 구정물은 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대방광불 화엄경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매일 지극히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이 아름답게 됩니다. 얼었던 모진 인연의 고리가 풀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실타래가 영키면 앞에 실도 곁에 실도 못 쓰게 됩니다. 실타래가 영키지 않게 지금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1년 반이 지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또 군더더기 말이 끊어지게 되지요. 말이 끊어진다는 것은 잡념이 끊어진다는 소리죠. 간섭하는 소리가 많이 하면 잡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좋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하는 것이 부처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방금 읽은 것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물론 뜻은 모르셔도 됩니다. 배고프면 일단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을 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보십시오. 아무지개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천년만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방광불(大方廣佛)의 대(大)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方)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침 놓다 안 되면 약 먹고 하는 것이죠. 편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편법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면서 범의 탐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편법입니다. 결국 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환한 밝은 대낮처럼 명약관화하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내 식구, 내 편, 우리 편, 동네 사람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마음의 본질을 전하겠다는 것이 대방광(大方廣)입니다. 큰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모든 방편을 가지고 그것을 정직하게 널리널리 펼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꽃처럼 살고 열매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럼 경은 뭐까요? 가마니를 예로 들어봅시다. 가마니 잘 때 낱줄이 바로 경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경입니다. 낱줄은 언제나 모양이 같습니다. 옆으로 가는 줄이 씨줄인데 이것은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오늘 읽고 내일 읽어도 감모수와 같고 물과 같아서 질리지 않습니다. 갖가지를 요리해 놓은 '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맛에 맞춰서 달라진다는 거죠. 먹물을 들이기도 홍화물을 들이기도 죽물을 들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경은 연주 줄과 같은 것입니다. 연주는 보리수도 있고 울무도 있고 프라스틱 연주알도 있고 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알이 꿰어 형성색색 다른 모양을 내는 것을 시절 인연이고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연주줄입니다. 똑같이 먹고 쉬고 쉬고 살아가지만 몸의 조건 따라 형편 따라 장소에 따라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있거 마련입니다. 경을 알게 되면 인연공덕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용학 스님은 매달 관음재일 마다 범어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강의한다.

1강좌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 질병을 좌우하는 몸속에 숨어영가를 찾아내어 조상명인지 객영혼인지를 확인하는 비법전수 수련법  
최면이 아닌 환자의 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전문가 강좌

- 1. 영적인 수련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영가 확인
- 2.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
- 3. 영가의 수준 파악.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향과 혼돈, 고급영가 : 깨달음에 대한 갈망

- 4.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 확인
- 매주 월, 수, 금 수련 / 오후 2시 / 보시금 1회 - 10만  
개인적인 전수는 수련후에 상담 - 자신이 체험하는 과정

2강좌 : 알기쉬운 이해하기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법  
2기 힐링분석상담사교육생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힐링분석 상담사란? 일반, 전문가 강좌

민간가격으로 인체에 흐르는 기 흐름을 감지하여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을 읽어, 영적인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 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미국의 다루징의 기법을 통한 80가지의 에너지도형의 분석법

- 1. 일반인반 4회 책자 / 2. 전문가반 6회 책자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 및 강의)

3강좌 : 우리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간직된오라장 일깨우는 차크라파동수련  
1-7차크라 각성하여 초능력과 잠재능력을 발현의 원리 수행의 완성  
난치병, 불치병, 병의, 정신병, 마음의병, 업장소멸의 원리를 체형, 치유

월, 금요일 / 오전 10, 오후 4시 / 수련 선택(수련비는 1회 3만원)  
난치병과 마음의 병치유 업장소멸의 원리 체형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청석고와 청운중사이)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 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몸이다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3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견)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